

## 지방선거 입지자들, 단체장 평가·복당자 페널티 '촉각'

### 뉴스 현장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입지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대선(3월9일)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 하긴 하지만,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새해 시작과 함께 보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위한 경선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대선에 집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모집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넓혀가는 등 바빠서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대선 기여도에 따라 출마자의 명암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운동도 게을리할 수 없어서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당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가 있는 하위 20% 포함 여부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사면'에 따른 탈당자들의 복당 문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등 지역 단위의 비문 성향 인사들의 대규모 복당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기간 복당 인원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당자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 인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복당으로 현 민주당 출마자들과 복당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이 공천

광주·전남선 민주당 경선이 본선 대선 코 앞 ... 일단 대선에 집중 내부적으로는 조직 넓히기 행보

에서 받는 페널티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줄곧 당을 지켰던 입지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당의 결정인만큼 우선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선이 끝난 뒤 곧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만큼 향후 경선 과정에서 복당과 복당자에 대한 감산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감산의 경우 대선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만, 기존 입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 대해 차등 적용을 할지 우려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단체장 선거와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현역 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리는 일부 자치단체 선거에서도 경쟁력있는 탈당자들의 복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시장 선거도 박홍을 전 시장이 열린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통해 복당을 앞두고 치열한 경선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 중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곳도 있다"면서 "새해 들어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사면을 놓고는 기존 당을 지켜온 입지자들 사이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 대선이 끝난 뒤 논란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빛나는 졸업장' 강당 대신 주차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 오전 광주 남구 동아여자중학교가 강당 대신 학교 주차장에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친환경 부품기업 유치 시동

### 이용섭 광주시장 "기업 접촉 중"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형 SUV 캐스퍼(CASPER)로 상징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생산 공장 2곳을 가동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친환경·자율주행차 부품 관련 기업유치 등을 통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을 염두에 두고, 유치 전략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광주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메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쪽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캐스퍼 양산 시작과 함께 '흥행 대박'을 친 GGM에 이어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

자리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시장은 자동차 공장의 성공을 이룬 만큼 친환경, 부품 등 관련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미 GGM의 완성차 양산에 이어 친환경·미래차 기반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자율주행차 부품 개발·인증·실증·생산에 이르는 일괄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데, 빛그린산단 내에 3030억 원을 들여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친환경 미래차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난달 준공식을 갖고 일부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광주는 2개 브랜드(기아-GGM) 자동차를 생산하고 친환경 차 부품 클러스터, 국내 유일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 경제자

유구역에 갖췄다"며 "자동차 전장사업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대표 도시이기도 하고 친환경 배터리팩 제조공장도 들어선 만큼 결국 (투자 유치 분야는) 부품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유치 기업을 물색 또는 접촉 중이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 관련은 민감한 내용"이라며 "아직은 구상 단계로만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부스터샷 돌파 감염 298명

###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49명 "그래도 반드시 3차 접종해야"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가리지 않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놓는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에서 코로나19 접종 후 감염자는 2858명이다. 이 중 1차 접종 후 감염자는 565명이고, 2차 접종 후 감염자는 1995명이다. 2차 접종 돌파 감염자의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767명, 화이자 816명(교차 102명), 모더나 217명, 안센 183명, 시노팜 8명, 스푸트니크 4명 등이다. 이

중 87건은 접종 후 14일 이내 감염된 사례다.

현재 오미크론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2명, 화이자 194명, 모더나 102명 등 298명이다.

광주시민 143만6183명 중 1차 접종 124만469명(86.4%), 2차 접종 118만9545명(82.8%), 3차 접종 완료자는 53만3010(37.1%)명으로 집계됐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체 백신 접종자 대비 돌파감염 건수는 미미하다"면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등을 막기 위해선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ince 1954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희망

1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4년 연속 1위